# Symphony No. 2 for strings and trumpet

- □□

정보

개요
곡명: Symphony No. 2 for strings and trumpet (trumpet ad libitum), H. 153

작곡가: Arthur Honegger (1892–1955)

작곡 ·완성: 1940–1941년, 1941년 말에 완성된 것으로 기록된다.

초연: 1942년 5월 18일, Zürich에서 Paul Sacher가 지휘한 Collegium Musicum Zürich가 연주했다.

헌정 ·위촉: Paul Sacher가 Basel Chamber Orchestra 창단 10주년을 위해 1936년 또는 1937년에 의뢰했고, 작품은 Sacher에게 헌정되었다 .

장르: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3악장 교향곡. 마지막에 선택 트럼펫이 더해진다.

조성 ·길이: D단조에서 시작해 종결부의 D장조 코랄로 향하며, 약 25–27분이다.

IMSLP: Symphony No.2, H.153 (Honegger, Arthur)

Wikipedia: Symphony No. 2 (Honegger)

Arthur Honegger의 Symphony No. 2 for strings and trumpet은 현악 합주만으로 두 악장의 긴장을 쌓은 뒤, 마지막 코다에 선택 트럼펫을 들려주는 3악장 교향곡이다 . Molto moderato–Allegro, Adagio mesto, Vivace ma non troppo–Presto 가 이어지며, D단조의 반음계적 마찰과 파사칼리아적 느린 악장이 마지막 D 장조 코랄과 대비된다. 트럼펫은 전곡을 지배하지 않고 끝부분에만 나타나므로 , 짧은 등장이 앞선 현악의
시간을 새롭게 비춘다.

의뢰와 작곡

Paul Sacher는 Basel Chamber Orchestra 창단 10주년을 위해 이 작품을 의뢰했다. 기관 자료는 의뢰
연도를 1936년 또는 1937년으로 달리 적으므로, 작품의 출발점을 두 연도로 병기한다. 전쟁과 파리 점령기의 불안 속에서 작업이 지연되었고 , Sacher Stiftung의 소장 목록과 기관 해설은 1941년 자필 총보와 1941년 말 완성을 가리킨다.

Honegger는 1941년 빈 모차르트 축제에서 Sacher에게 악보 사본을 건넸고, 이듬해 취리히에서 첫 공연이 이루어졌다 . 작곡가가 작업실에 석탄이 없어 추위에 떨었다는 기록은 당시의 구체적인 생활 조건을 보여 주지만, 교향곡에 특정 사건이나 문학적 이야기를 배정하는 근거는 아니다. Honegger는 감정이 음악으로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겼을 뿐, 문학적 ·철학적 프로그램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초연과 출판

1942년 5월 18일 Zürich에서 Paul Sacher가 Collegium Musicum Zürich를 지휘해 세계 초연했다는 기록이 Paul Sacher Stiftung, BnF, 여러 연주기관 자료에서 일치한다. Honegger는 전쟁 중 이동 제약으로 이
공연에 참석하지 못했다. 6월 25일 Paris의 Honegger 50세 기념 행사에서 Charles Münch가 작품을
연주했으며 , Honegger 공식 전기의 “첫 연주 ”라는 모호한 표현은 이 파리 공연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공연을 하나의 초연으로 합치지 않는다.

Paris의 Salabert는 1942년에 총보를 출판했다. BnF는 현악 네 파트와 트럼펫 한 대를 기재하고, Honegger 공식 목록은 트럼펫을 ad libitum 으로 표시한다. 트럼펫 파트는 필수적인 독주 협주 파트가 아니라, 마지막 코랄에서 제 1바이올린의 긴 선율을 다성부 위로 받치는 선택 파트다.

소요 시간

공식 작품 목록과 BnF는 약 25분, Sinfonieorchester Basel의 녹음은 27분 22초로 제시한다. 템포와 악장 사이의 호흡, 선택 트럼펫을 포함하는 방식에 따라 전곡은 약 25–27분으로 들린다.

편성

현악 오케스트라와 선택 트럼펫을 사용한다.

현악: 제 1·제 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선택 파트: 트럼펫 1. 작곡가의 노트에는 필요할 때 오보에나 클라리넷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설명도
있다.

현악은 목관과 금관의 음색 전환 없이 음역과 성부의 밀도로 교향적 공간을 만든다. 트럼펫이 마지막에만
더해지기 때문에, 새로운 악기 하나가 전체 음향의 균형을 단번에 바꾸는 효과가 생긴다.

세 악장의 구조

I. Molto moderato–Allegro

독주 비올라가 D음에서 D♭음으로 올라가는 단 2도 동기를 제시하며 악장이 열린다. 느린 Molto moderato 의 압력이 Allegro 로 이어질 때, 현악 성부들은 짧은 네 구절을 발전시키고 서로 겹치면서 전통적인 재현부와
다른 진행을 만든다. 상승 동기는 음역과 리듬을 바꾸어 반복되고, 반음계적 마찰은 악장 전체에 좁은 공간의 긴장을 남긴다.

이 악장에서 현악은 단순히 두꺼운 화음을 만드는 집단이 아니다.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선이 서로 밀어내고, 첼로와 더블베이스가 낮은 압력을 지속하면서 주제가 여러 방향으로 갈라진다. 트럼펫이 아직 등장하지 않는

만큼, 음악의 긴장은 오직 현악 내부의 대위와 리듬에서 나온다.

II. Adagio mesto

3/2박자의 느린 악장은 어두운 파사칼리아 성격을 지닌다. 상승하는 단 2도 음형이 첫 악장의 D–D♭ 동기와 연결되고, 같은 움직임이 낮은 성부와 중간 음역의 선율에서 반복 ·변형된다. 현악은 큰 음량을 계속
유지하기보다 긴 호흡과 짧은 응답을 번갈아 놓아, 개인적인 탄식과 합주 전체의 무게를 한 문장 안에 겹친다.

Honegger의 1943년 메모는 이 가운데 악장이 1941년 겨울에 먼저 떠올랐다고 전한다. 느린 악장에서
시작된 생각이 첫 악장의 엄격한 형식과 마지막의 밝은 대조로 확장되었다는 이 기록은 세 악장이 서로 고립된 장면이 아니라 하나의 작곡 구상에서 나왔음을 보여 준다.

III. Vivace ma non troppo–Presto

마지막 악장은 높은 음역의 장난스러운 선율과 낮은 현의 압박적인 움직임을 맞세운다. Vivace ma non troppo 의 빠른 음형은 앞선 두 악장의 정지를 흔들고, Presto 로 갈수록 현악의 대위가 밀도를 높인다. 코다에서 선택 트럼펫이 D장조 코랄을 더하면 제 1바이올린의 긴 선율이 다성부 위로 떠오르고, 곡은 D장조 화음으로 끝난다.

트럼펫의 코랄은 승리를 장황하게 선언하는 결말이 아니다. 현악이 끝까지 앞선 동기를 움직이는 가운데
트럼펫이 짧게 지지하므로 , D장조의 빛은 오래 지속된 D단조의 압력 위에 얇게 열리는 통로처럼 들린다. 트럼펫이 선택 파트라는 사실은 이 효과가 음색의 필수 조건보다 형식의 마지막 대비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현악 합주가 만드는 전쟁기의 음향

이 교향곡은 전쟁기 파리의 현실과 자주 연결되지만 , 음악 자체는 구체적인 전투나 정치적 사건을 묘사하지 않는다. 현악만으로 제한된 편성, 불안정한 화성, 파사칼리아의 느린 반복, 마지막 코랄의 조심스러운 장조가 당시의 압력을 추상적인 음향으로 바꾼다. Honegger가 말한 추운 작업실의 경험은 작품의 외부 조건을 보여 주는 자료이고, 코랄을 해방의 선언으로 읽는 해석은 이후의 수용에 속한다.

평론가들은 마지막 코랄을 Bach 또는 스위스 ·독일 전통과 연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악보에 특정 코랄의
출처가 적힌 것은 아니다. 이 장면에서 확실히 들리는 것은, 현악의 좁은 음역과 대위가 오랫동안 만든 어둠을 트럼펫 한 대가 D장조의 선율로 가로지른다는 구조적 관계다.

선택 트럼펫과 작품의 위치

H.153은 Honegger가 남긴 다섯 교향곡 가운데 현악 편성을 가장 강하게 제한한 작품이다. Sacher의 의뢰에서 출발한 실내악적 조건은 현악 내부의 성부를 세밀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확장되고, 마지막의
트럼펫은 그 긴 시간을 한순간에 다른 색채로 돌린다. 제 3번 Liturgique과 같은 전쟁기 작품으로 자주 언급되지만 , 제 2번은 더 적은 악기와 압축된 형식으로 긴장을 만든다.

주요 자료

- Orchestral Music, Symphony No. 2 H.153 (Arthur Honegger □□ □□ )
- Paul Sacher□ 1942□ □□ □□ (Paul Sacher Stiftung)
- Arthur Honegger □□ □□
- Symphony No. 2 H.153 □□ □□ (BnF)
- Honegger □□ □□ (Paul Sacher Stiftung)
- Honegger Symphony No. 2 □□□ (Sinfonieorchester Basel)
- Arthur Honegger, Music and the Holocaust (ORT)